태풍·적조 걱정없는 수중 양식장 생긴다

20~30m 해저에 가두리 설치
내만 양식 어려운 돌돔 등 양식
여수시 내년말까지 개발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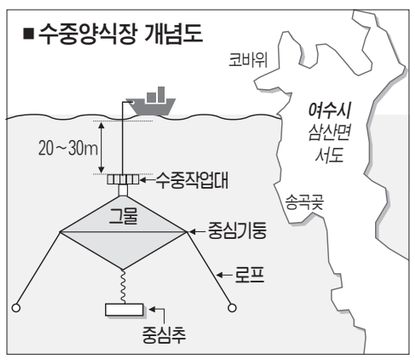
태풍과 적조에 끄떡없는 수중(水中) 양식어장이 전남 남해안에 첫 선을 보인다.

여수시는 2007년 말까지 삼산면 서도에 중층식 수중 양식어장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층식 수중 양식어장은 연안과 떨어진 외해 수심 20~30m의 바닷속에 가두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개념도〉

시는 삼산면 서도 앞 해역 5ha에 수중 양식어장을 설치, 돌돔 등 내만에서 양식이 까다로운 어류를 양식한다는 계획이다. 가두리에는 수중작업대가 설치되고, 호스나 간이 분산장치 등으로 배합사료가 공급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어장 개발에 참여의사가 있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에 시험어업 승인 신청을 한다는 방침. 이 사업에는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 ▲어업인 자기부담 6억원 등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중 양식어장은 현재 제주도 해역에서 시험 중으로, 태풍·적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서도 해역은 수심이 40~70m로 수중 어장 설치에 적지"라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태풍과 적조로 매년 피해를 보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어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해에 어장을 설치함으로써 연안 해역의 해상 조망권 회복과 해양 환경개선으로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분야 행정서비스 모범상

광주시의 상수도 서비스 분야가 장이 2005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모범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5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05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상수도 서비스 분야가 고객 응대 및 업무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모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도서관)와 남구(주민편의시책)도 우수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에도 '도서관서비스 헌장'이 모범상을 받았다.

/김주정기자 jjnews@

포근한 한식(寒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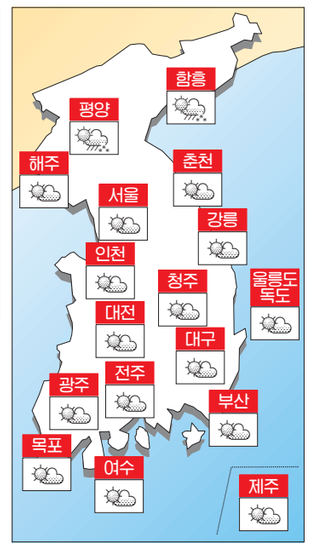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뒤 오후엔 구름이 많겠다.

4월 6일
(음 3월 9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은뒤 구름 많음	5~18℃
목 포	맑은뒤 구름 많음	5~15℃
여 수	맑은뒤 구름 많음	8~15℃
완 도	맑은뒤 구름 많음	6~16℃
구 례	맑은뒤 구름 많음	4~18℃
해 남	맑은뒤 구름 많음	3~16℃
장 흥	맑은뒤 구름 많음	3~17℃
고 흥	맑은뒤 구름 많음	7~16℃
순 천	맑은뒤 구름 많음	3~19℃
영 광	맑은뒤 구름 많음	3~15℃
진 도	맑은뒤 구름 많음	5~17℃
전 주	맑은뒤 구름 많음	5~18℃
남 원	맑은뒤 구름 많음	3~19℃
정 읍	맑은뒤 구름 많음	5~1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8:19 20:02 썰물〈 00:19 14:51
여 수 밀물〈 03:28 16:37 썰물〈 11:02 22:19



▲해뜸 06:13 ▲해짐 18:57 ▲달뜸 11:58 ▲달짐 02:2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 씨						
최저/최고	7/19	5/19	5/20	8/18	9/17	8/20

월출산 새 구름다리 걸렸네

영암 월출산에 새로 모습을 드러낸 구름다리. 해발 120m 높이 허공을 가로지른 이 현수교(懸垂橋)는 길이 54m · 너비 1m로, 매봉~사자봉(해발 510m) 구간의 등산로를 잇는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 다음 달 초 개통 예정이며, 폐쇄된 등산로도 다시 개방된다. 지난 1978년 설치된 옛 구름다리는 연간 30여만명의 탐방객이 이용했으나, 시설이 낡고 폭(60㎝)이 좁아 불편이 많았다. 〈사진=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쌀을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쓰다니…"

전남도·농민단체 반발

백화점 등에 문제 제기

광주시내 대형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이 쌀을 초저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전남도와 농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5일 광주·전남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등 18개 대형 유통업체에 쌀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주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전남도는 "일부 유통업체가 농산물 특가 판매행사를 진행하면서 쌀을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판매하려는 것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행위"라며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 산업이 붕괴할 수 있는 만큼 그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유통업체는 쌀 20㎏ 들이 1포대를 시중가격인 4만4천~4만5천원보다 25%가량 저렴한 3만1천~3만5천원대에 판매하는 특판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일부 업체가 쌀 20㎏ 1포대 당 3만1천300원~3만1천8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한편 전농 광주전남연맹도 최근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습적인 유통업체의 쌀 특가전 개최행위는 농민 죽이기에 앞장서는 행위"라며 "쌀 저가판매 행위 지속시 시민·사회·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전기·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

토익시험 부정 알선 20명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토익(TOEIC)시험 부정 행위를 알선한 김모(25)·이모(25)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0)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26일 실시된 제158회 토익시험에서 수험생 1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소형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알선, 1천9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험생을 끌어모으는 '모집책'과 시험장에서 정답을 외부로 유출하는 '선수', 이 정답을 다시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전파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험생들은 미리 귀 속에 장착한 지름 2㎜의 초소형 이어폰과 목걸이형 안테나, 수신기로 구성된 무전기나 소매 안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사용해 정답을 수신했다. /연합뉴스

수시 1학기 전형방법 크게 바뀐다

고대·이대 2007학년 언어·수리 논술 통합 실시
연대 면접비중 확대…한양대 전공적성검사 폐지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한양대가 전공적성검사를 폐지하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통합해 실시하는 등 대학별로 전형방법이 크게 바뀐다.

한양대는 전공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수리논술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통합교과형 논술로 변경해 시행한다.

아주대와 홍익대는 전공적성검사를 단계별 전형의 합격·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하고 경희대는 전공적성검사 비중을 10% 낮추기로 했다.

연세대는 학생부 비중을 10% 낮추는 대신 면접 비중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25%로 늘리기로 했으며 서울여대도 2단계 심층면접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며, 모집인원의 16%인 807명을 수시 1학기 전형으로 뽑는 조선대도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형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조선대는 다만 교사추천자 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을 교사추천점수 16점에서 15점으로 하향조정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전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자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여수시 일용직 등 공무원 23명 민주당 가입 물의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청 A씨 등 7급 공무원 4명, 8급 1명과 일용직 17명 등 모두 23명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사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입당했으며 당비도 상당수가 대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지방선거 현금제공 광주 첫 적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종용한 시의원 예비후보자 S씨와 그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주모자 M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측근인 M씨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지난 3일 화정동 모 식당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H씨 등 4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다 현장을 감시 중이던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당해 고발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M씨와 조사실 유리창을 깨는 등 시설을 파손한 E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이송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